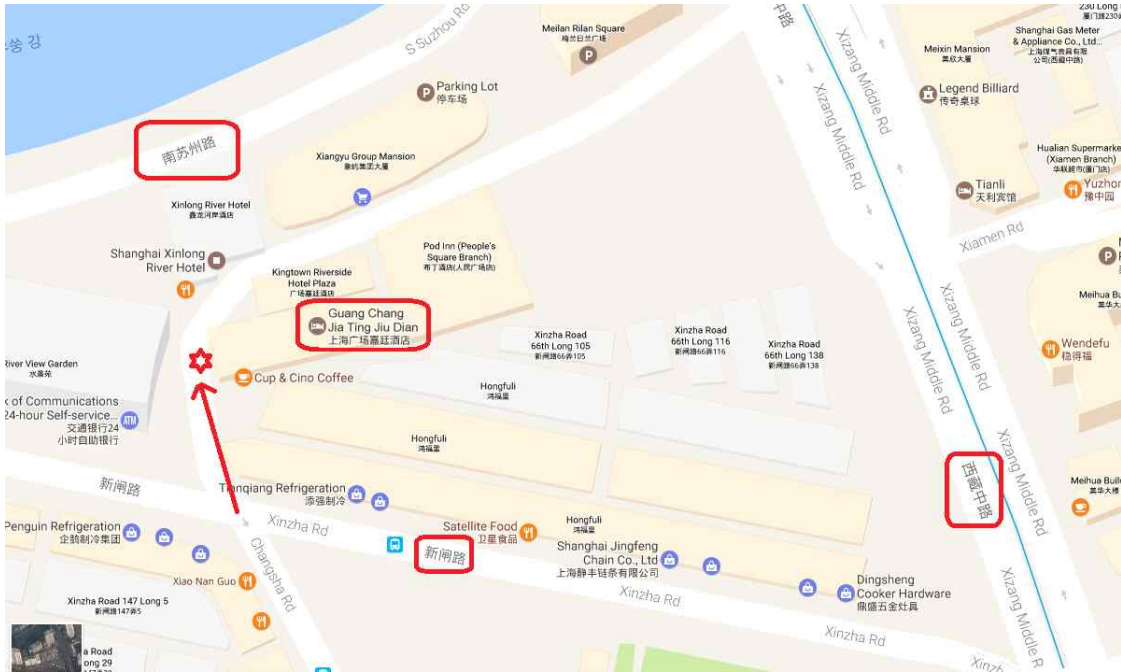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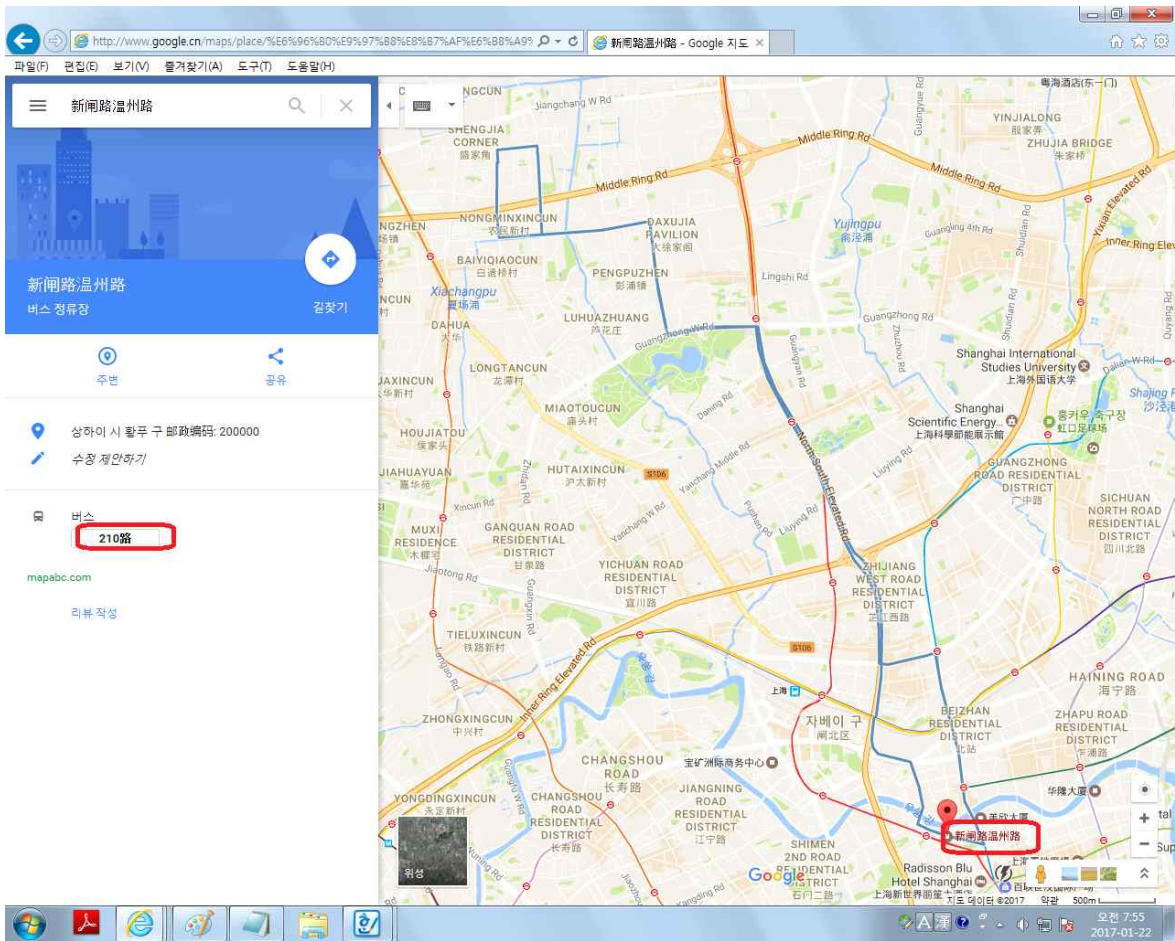
西藏中路 - 新闻路

上海广场嘉廷酒店 021 6137 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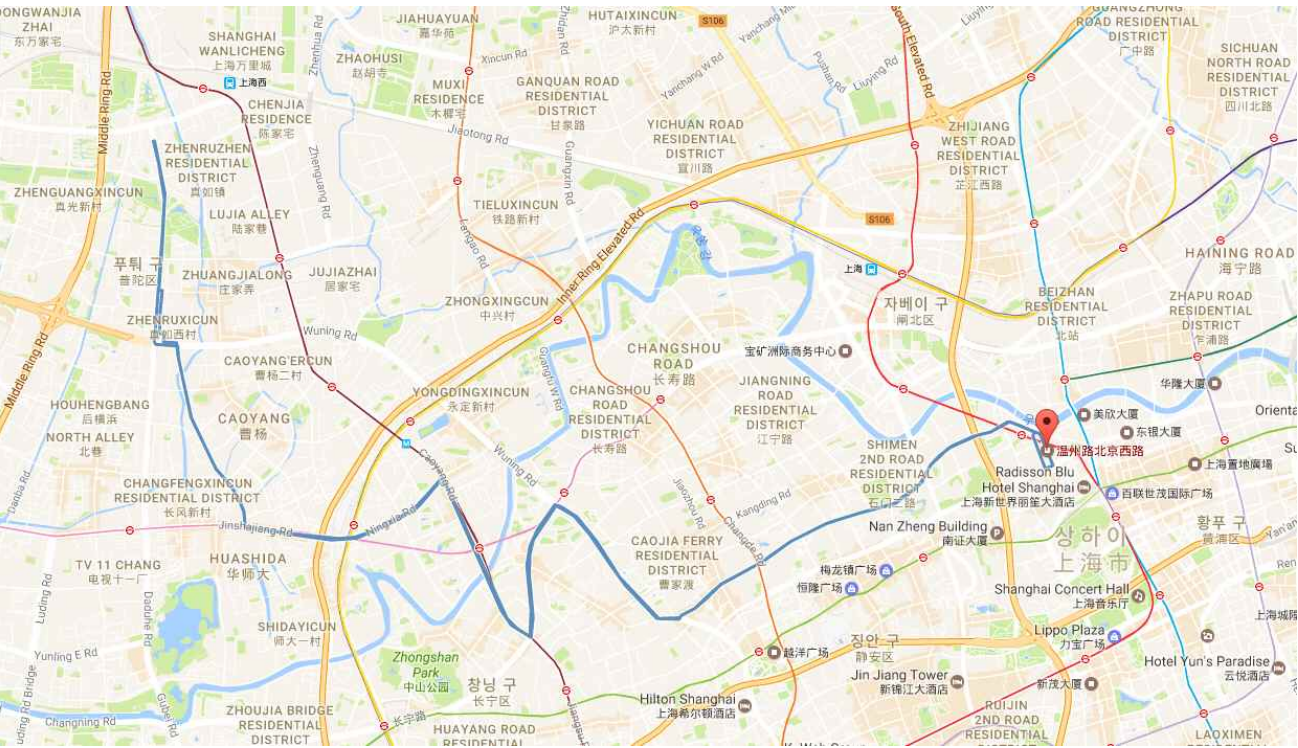
Guang Chang Jia Ting Jiu D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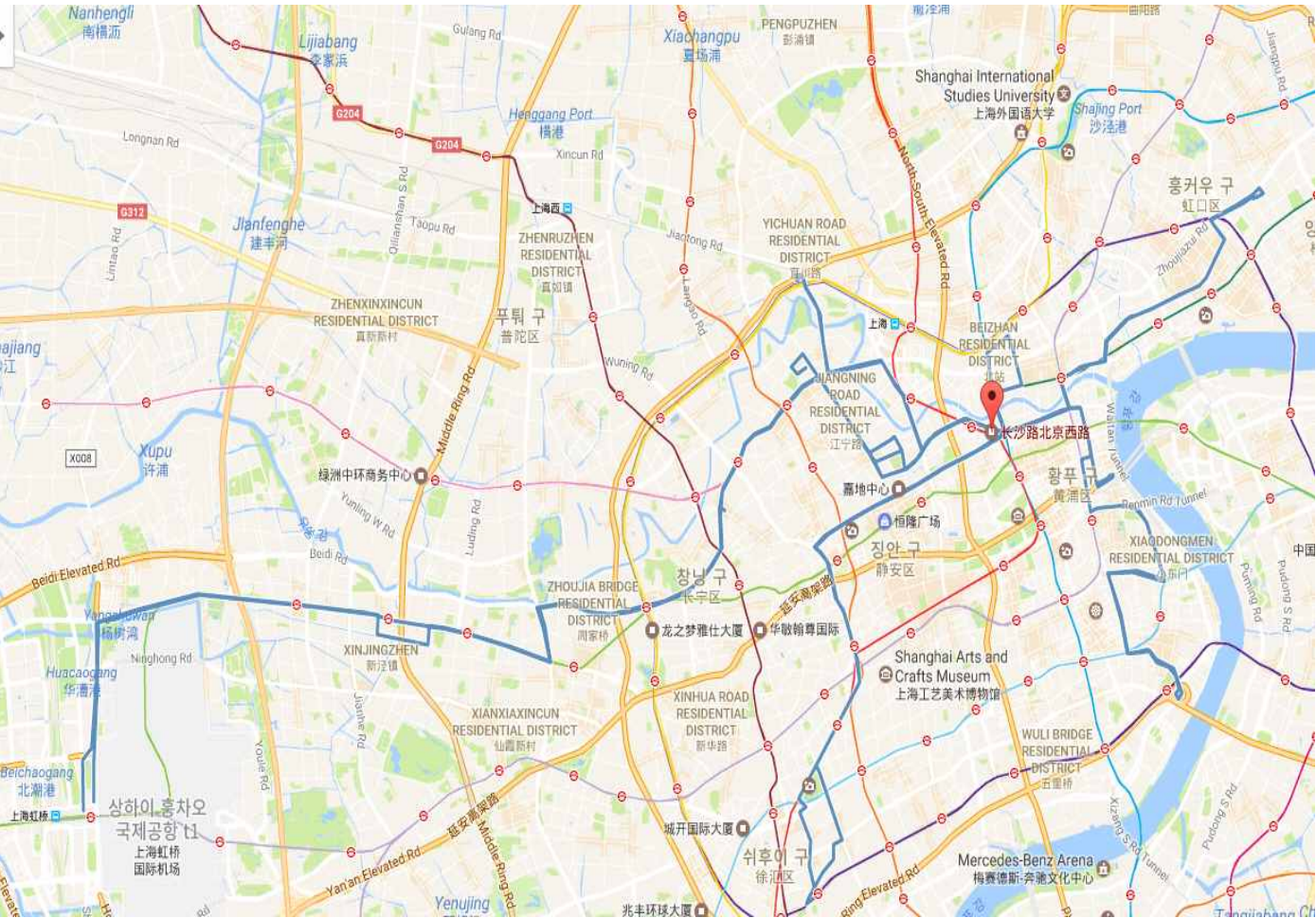
210번 버스로 돌아가보기



136번 버스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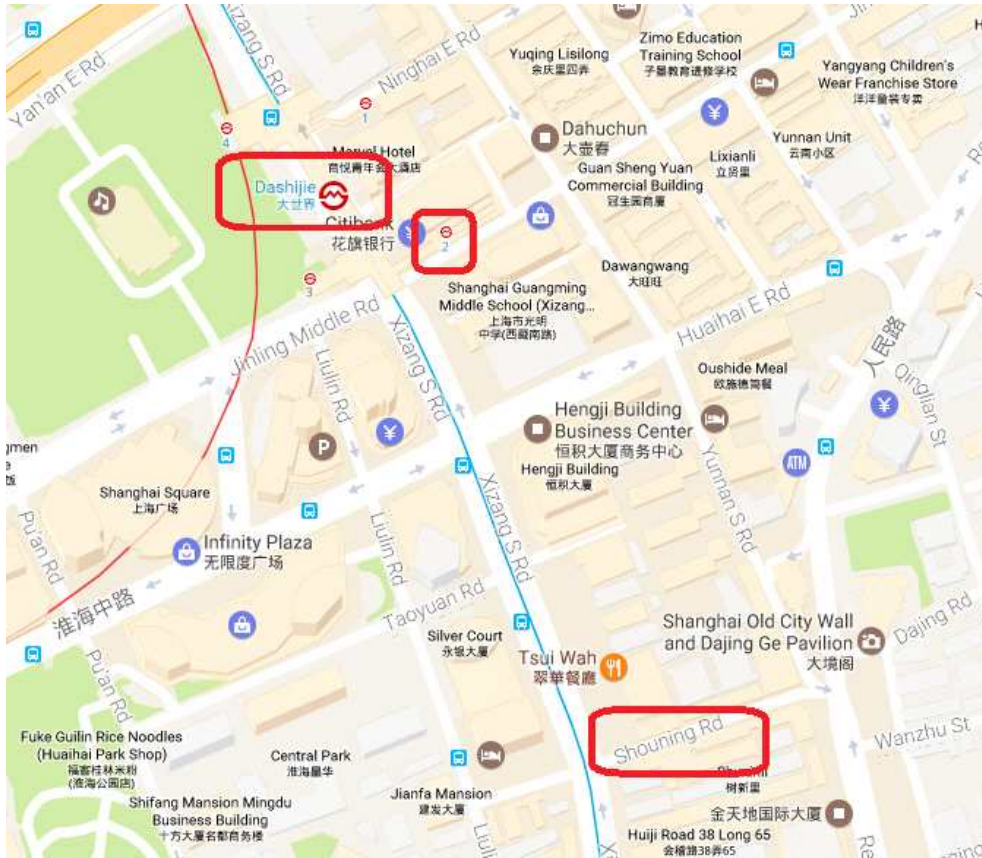


15路 19路 64路 316路



<http://soullife86.tistory.com/229>

야시장 마라롱샤 먹기 위해서-8호선 신세계역 2번출구 길건너 직진 쇼우닝가



상해에서 먹은것중에 베스트 메뉴였어요!

다음에 가도 또 먹을 맛!! ㅋㅋ 마라롱샤! 추천!



이것은 갯가재? 갯새우? 롱샤라고 하면 될랑가요?

이거도 맛있더라고요!! 둘다 맛있음!

맛있어 보이쥬? 상해 여행 오시면 마라롱샤 꼭 추천해요 ㅋㅋ

빨간거 하얀거 둘다 꼭 드세요! ㅎㅎ

배틀트립 상하이편에서도 아이오아이가 마라롱샤 맛있게 먹던데!..

1.27(금) 상해 푸둥공항 도착 [푸둥 국제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기](#)

1. 지하철 **3일권으로 산다. 60위안?**

상하이 여행 시 가장 효율적인 교통 수단이 바로 지하철이다. 현재 16호선까지 완공되었으며, 어떤 호텔이라도 지하철을 이용하면 된다. 연장된 2호선 지하철로 푸둥 국제공항에서 홍차오 국제공항까지도 갈 수 있다. 짐이 너무 많은 경우만 아니라면 요금이 저렴한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해 보자. 환전할 때 100元 단위로 환전했다면 우선 100元을 10元 단위 거스름돈으로 바꿔서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

2. 자기 부상 열차

지하철 2 · 16호선 룡양루(龙阳路)와 연결되어 있다. 운행 시간은 푸둥 국제공항 출발 오전 7시 2분~오후 9시 32분, 룡양루 역 출발 오전 6시 45분~오후 9시 30분까지고, 요금은 편도 50元인데 당일 비행기표를 제시할 경우 40元이고 왕복 80元이다. 룡양루 역까지 소요 시간은 8분밖에 안 걸리지만 목적지가 그곳이 아니라면 굳이 탈 필요는 없고 공항 버스보다 비싸기 때문에 공항 버스가 더 효율적이다.

3. 공항 버스

자기 부상 열차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저렴하고 지하철보다는 편안한 것이 공항 버스이다. 공항 버스는 1층 도착하는 곳, 출구 밖에서 탑승하면 된다. 탑승 시 짐을 실을 때 받는 화물 보관증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1번과 2번 버스는 직행 노선이고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정류장이 있다. 호텔 위치를 잘 확인하고 탑승하자.

5호선(机场五线) 종점 : 상하이 기차역(上海火车站, 상하이뤄저잔) 배차 간격 : 20분 가격 : 16~24元

정류장 : 푸둥다다오(大道), 동팡 병원(东方医院), 옌안중루(延安中路) **인민광장에서 걸어가도 될 듯**

4. 택시

푸둥 국제공항에서 도심가로 들어가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요금은 200元 정도가 나온다. 요금에 구애받지 않거나 짐이 많아 불편할 때, 여행자가 3~4명일 때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게 좋다.

방법1 - 공항밖 5번버스 2015년 1인당 22원 그럼 4명은 88원

방법2 - 택시를 타고 가는 방법, 얼마일까?

방법3- 공항버스 80위안 4명이면 320위안 택시비보다 비쌀 듯

방법4- 자기부상열차를 50위안 타고 가서 지하철 2호선/택시 56위안에 상해역 도착 (2015년 기준)

1. 상하이공항 도착하여 짐을 찾고 입국수속을 하면 1층이 된다

2. 자기부상열차(MagLev)는 1터미널과 2터미널 사이에 있으므로 2층으로 올라간다

3. 내린 곳이 1터미널인지 2터미널인지 알고 반대편으로 간다.

4. 당일권50위안, 7일권80위안이다. -- 당일비행기표 할인20% 40위안 왕복은 안됨

4명 왕복*80위안 = 320위안



票价 Fare (元 RMB)			
	普通席 (Economy)	贵宾席 (VIP)	有效期 (Valid period)
单程票 Single-trip	50	100	当天 one day
往返票 Round-trip	80	160	7天 seven days

凭当日机票单程车票八折优惠
20% off with air-ticket of the day (Single-trip)

5. 룡양루 역([중국어간체](#):龙阳路站, [정체](#):龍陽路站, Longyanglu Station)은 [중화인민공화국상하이 시](#)에 있는 [상하이 지하철](#) 역과 [상하이 자기부상 시범운영선](#)의 역이다. 시내의 출발 역이 되고 있으며, 푸둥 국제공항 역 행까지 30km의 공항을 8분 이내로 연결한다.

6. 지하철2호선으로 가서 표를 **3일권으로 산다. 60위안?**

7. 인민광장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여 신문로역에 내린다.

방법5-지하철 2호선을 타고 광란루에 가서 다시 2호선 바꿔타고 인민광장에서 1호선 환승

上海站 - 浦东国际机场은 7원. 지하철 안내도를 보니 上海站에서 浦东国际机场에 가려면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1호선을 타고 人民广场(런민광창)에서 계단을 내려갔는데, 마침 지하철이 서 있더라고요. 저게 내가 타려는 차인가? 하고 방향을 확인하는 동안에 가버렸습니다. 다음차를 15분은 기다린 것 같습니다.

Tip 1 ; 지하철역 플랫폼이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가는 방향의 다음 역 이름을 알아두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더 눈에 잘 띄니까요 (내 경우는 다음 역이 南京东路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 차를 놓치지 않았을 거고, 그랬다면...)

지하철 노선 안내도를 둘러 보는데 广兰路(광란루) 부분에 浦东国际机场에 가는 승객을 위한 안내문이 붙어 있는게 띄었습니다. 한자로 쓰여 있는데 换乘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거기서 갈아탄다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노선 안내도에는 분명히 浦东国际机场까지 나와 있는데 왜 换乘하라고 하지?"하고 궁금했습니다. 안내방송으로도 계속 广兰路, 换乘(환청)이 나오길래 뭔가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广兰路가 다가오자 승객들이 내릴 준비를 하더군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공항까지 가는 여행객)들도 있긴 했어요. 广兰路에서 대부분의 승객들이 내리길래 나도 따라 내렸습니다. 모르고 앉아 있던 사람들도 나중에 내렸습니다.

곧 맞은편 (그러니까 상해시내로 나가는 방향)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그걸 타더군요. 나는 이거 방향이 다른 거 아냐? 하는 생각에 옆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푸둥공항에 간다길래 일단 탔습니다. 과연 공항방향으로 가더군요.

Tip 2 ; 2호선은 일단 广兰路가 종점이고 거기서 푸둥공항까지는 广兰路~浦东国际机场까지 다니는 지하철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도도 잘 보면 广兰路 부분은 동그라미가 끊어져 있더라고요. 浦东国际机场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공항 구조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에 그냥 승객들이 움직이는 쪽으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제법 긴 거리를 한참 걸어 가니 国内线 표지와 南方航空 데스크가 나오더군요. (가장 멀리 - 안쪽에 있어요!) 예매한 항공표를 확인하려고 여권을 보여주니...세상에! 너무 늦었다(too late)는 겁니다. 이게 뭘 소리? 하고 휴대폰을 찾아 시간을 보니 07:25이었던가? 그래서 난 부칠 짐도 없으니 지금 어떻게 탈 수 없겠냐 하면서 안 되는 영어 중국어 섞어 가며 사정했는데 안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륙 15분 전이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건 모든 수속을 마친 경우(즉 티켓 확인-검색대 통과)에나 해당하는 말이고, 내 경우는 그 시간에 수속을 마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하, 이래서 예매할 때 적어도 1시간 30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고 했구나 하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썬 맛에 환불 불가능한 티켓을 예매했으니 그냥 날린 거죠.

어떻게 하나 하고 다음 시간을 물었더니, 오늘은 없고 내일 있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항공사에서 직접 사니) 엄청 비싸죠. 주저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火车로 갈까? 그렇더라도 여차피 내일 도착인데 내일 그냥 비행기로 갈까 하고 고민했죠. 하여간 와이파이를 검색을 했습니다. (상해 공항에서는 I shanghai(爱上海)라는 와이파이 망이 터지더군요. 어플을 내려 받으면 상해 시내 곳곳에서도 무료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13:40 비행기편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보니까 东方航空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东方航空 카운터는 안 보이더라고요.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어보니 중국어로 "티이, 티이"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가만히 있으니 그제야 Terminal One이라고 영어로 하더군요. 아하, 감잡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거기는 T2였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버스를 타라고 하더군요. 밖으로 나가니 "罢渡"라는 글씨 밑에 shuttle T1-T2라고 쓰인 안내판이 보입니다. 거기서 조금 기다리니 버스가 오더군요. 5분도 안돼 T1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하차지점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니 바로 东方航空 데스크가 나왔습니다.

Tip 3 ; 浦东国际机场의 터미날은 T1과 T2가 있다. 각 터미날에는 국내선과 국외선이 함께 있다. T1과 T2를 연결하는 셔틀 버스가 10분마다 다닌다. 항공사별로 터미날이 다르다. KAL과 东方航空은 T1, 南方航空과 Asiana는 T2에 있다. 티켓을 예매할 때, 지하철로 공항에 들어 갈 때도 T1인지 T2인지 꼭 확인하고 움직일 것

저도 푸둥공항을 가기위해 인민광장 역에서 2호선을타고 푸둥으로 향했는데 시간은 거의 도착할 시간인데 도착하기는 커녕 문가이상하여 옆사람에게 푸둥공항까지 얼마나 더 가야하냐고 물었더니 이거 홍교공항가는 중이라지 뭐니까. 홍교공항은 푸둥과 정반대에 있지요. 아니 그럴리가 없다고 나는 분명 푸둥가는 방향으로 승차했다고하니 중간에 광란루라는 역에서 내렸어야했다는군요. 아니세상에 뭐 이런법이. 그럼 종점 표시를 광란루역으로 해 놓아야지 왜 푸둥까지 연결된 것처럼 해 놓냐구요. 자세히보니 광란루역에 노란글씨로 푸둥가는 승객은 여기서 환승하라고 써있더군요.

오드리가좋아하는햇반 15.05.19. 1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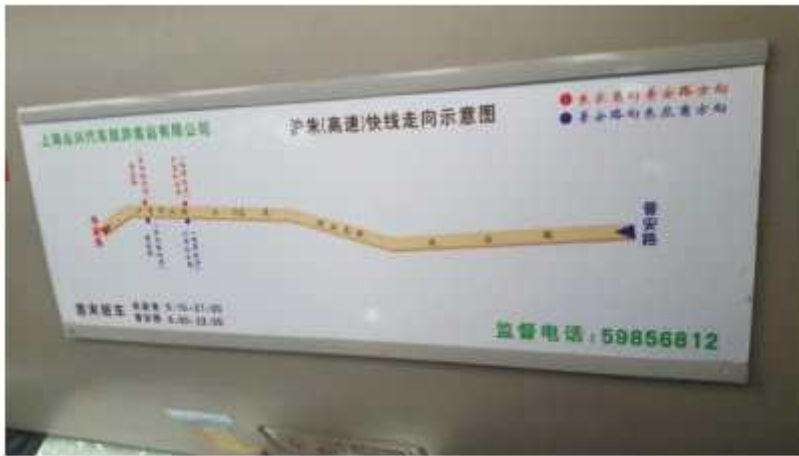
광란루역에서 다시 인민광장역 방향으로 운행하더라고요.. 방송듣고도 멍청히 앉아있다가 화들짝 놀라서 다음역에서 내려서 다시 광란루역으로 가서 내렸답니다..ㅠㅠ

주가각 zhujiajiao 주가 각 朱家角(주자자오) - 걸어서 둘러보고 오는 배를 탄다.

8호선 대세계 3번 출구 쾌속(快速) / 고속(高速)



이 신호등을 건너 오른쪽이 버스정류장^^



쾌속 버스 노선도



주가각 버스 탑승 장소

제일 끝에 주가각 가는 버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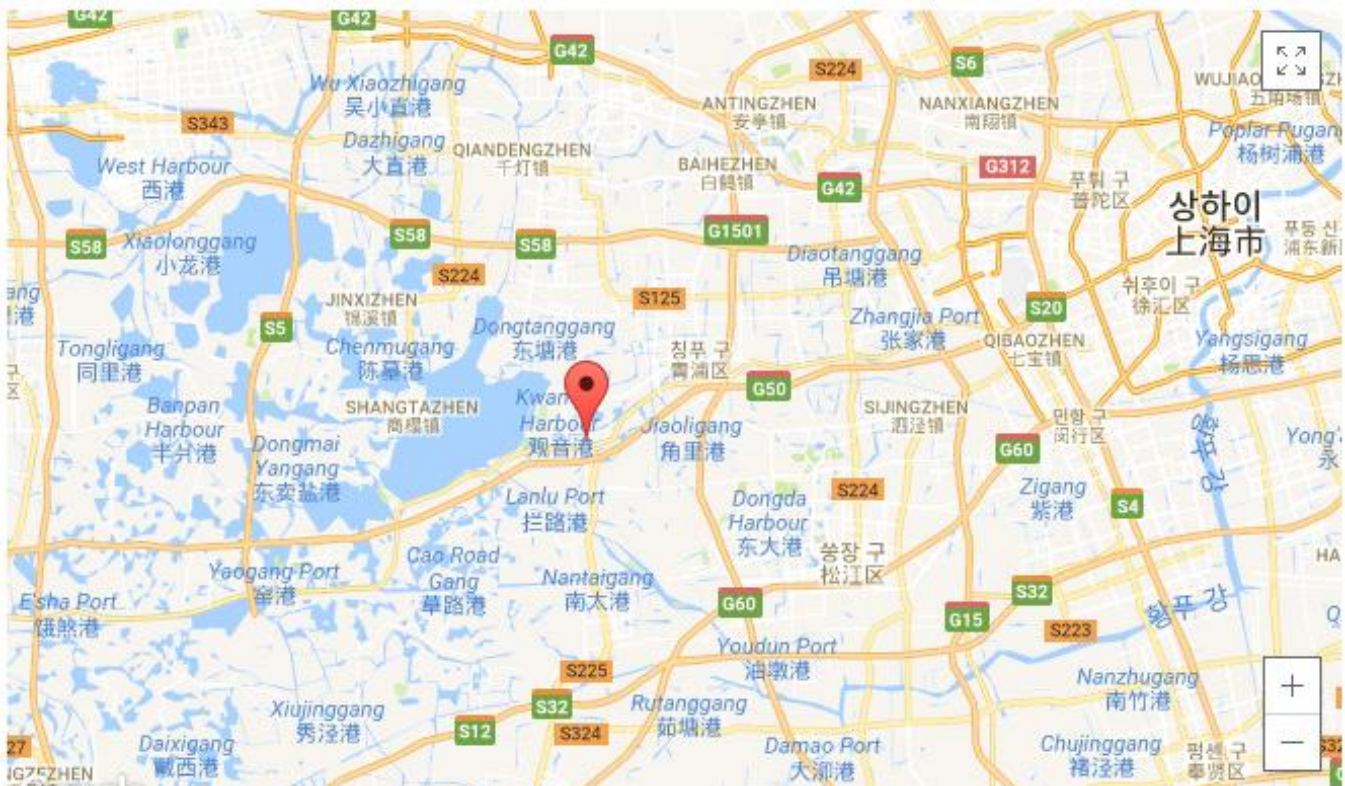
버스 안내원(?)이 돌아다니며 직접 버스비를 받으려고 돌아다닌다. 편도로 12위안



나오자마자 왼쪽으로 직진



여기서 우측 신호등 건너면 추가각 한자가 보임



주자자오

동역어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곳 다른 표기 언어Zhujiajiao , 朱家角

소재지	上海市青浦区朱家角镇
요금	마을 입장은 무료 / 30元(3개 관광지), 60元(7개 관광지), 80元(9개 관광지)
사이트	zhujj.shqp.gov.cn
이용 시간	08:00~17:00

주자자오(朱家角)는 약 1,700년 전부터 촌락이 형성되었으며 상하이에서 가장 오래된 수향 마을로,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린다. 우리에게는 소지섭이 출연한 드라마 <카인과 아벨>의 배경으로 친숙한 곳이기도 하다. 주자자오는 장쑤 성, 저장 성, 상하이와 연결되어 과거에는 물류의 중심지였다. 도시의 강이 가로세로로 얹혀 있고 그 강을 따라 9개의 운하가 뻗어 있다. 그래서 다른 수향 마을에 비해 각기 다른 물줄기를 엿볼 수 있다. 규모가 아담하고 관광 명소는 적은 편이지만 다른 운하 마을에 비해 찻집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대청우국으로 가는 수로길에 형성된 카페 거리가 인상적이다.



주자자오 지도

가고탕포 -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인민광장 로컬 식당

MOMO_PD 2016.12.22 0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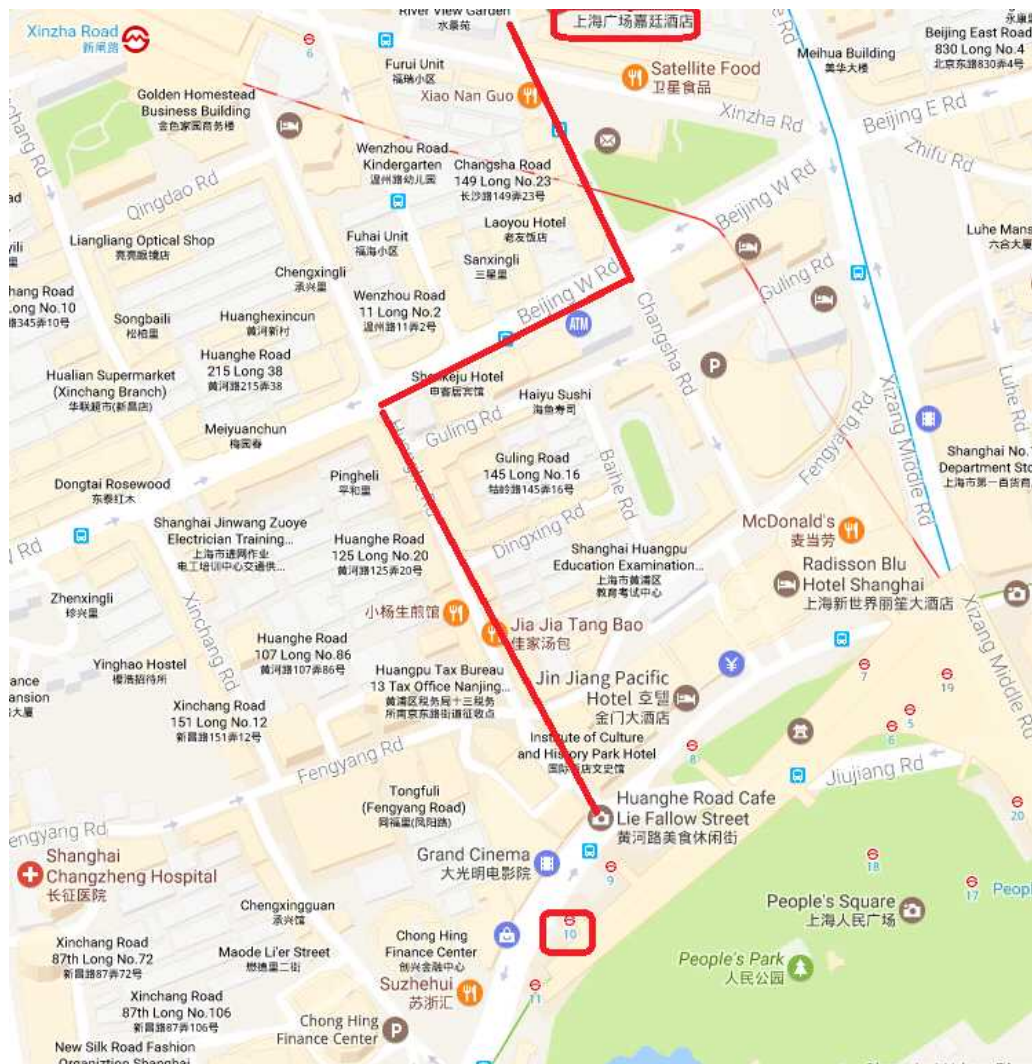
상하이에 먼저 가본 친구들이 완전 강추하던 **가고탕포**

로컬에서도 상하이에 제일가는 샤오롱바오(중국식 덤섬)로 통한다고 한다

대만에서 샤오롱바오에 대한 기억이 좋았던 터라 본격적인 상하이에 여행에 앞서 가장 먼저 들렀다



인민광장 10번출구에서 나와서 저 호텔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된다.



참고로 지도만 믿고 저기를 찾아가려면 길 잃기 십상이다. 또 엄청 돌아야 하고. 무조건 인민광장역을 찾아 가는 걸루



걸어도 걸어도 만나온다 했더니 웬걸 너무 작은 규모라 가게를 지나친 거였다.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들린 덕에 웨이팅 없이 바로 착석



가고탕포의 가장 유명한 메뉴는

게살 10%와 돼지고기 90%로 이뤄진 샤오롱바오, '세편샌러우탕바오'와
게알 샤오랑바오인 '춘세편탕바오' 여기에 계란탕(5위안)과 생강채(2위안)를 추가하면 된다.

난 원래 게살 샤오랑바오만 시킬 생각이었는데,

품절이란 소리에 눈물을 머금고 99위안짜리 게알 샤오랑바오를 주문 참고로 선불이다.



국물이 없으면 심심하니까 ㅋㅋㅋ

참고로 가고탕포는 있는 자리에 무조건 앉는 시스템이다.
내 앞에 첼보는 중국 아저씨가 앉아 식사할 수도 있다는 소리.
조금 민망하긴 했는데,
오히려 말이 전혀 안통하는 사람이니 별 신경 안쓰고 식사를 할 수 있었다



1인분에 12개 은혜로운 샤오롱바오의 빛깔



샤오롱바오를 우리나라 만두처럼 먹다간 뜨거운 육수에 혀를 데이기 쉽다
수저에 올려놓은 뒤 만두피를 터트려, 육즙부터 마시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한다.
양은 여자 혼자 먹기에 적당하다 맛은...흠... 정말 맛있는데, 조금 느끼하다
생강채를 주문 안했으면 어찌 먹었을까 싶을 정도로 ㅋㅋㅋ
어쨌든 맛있었으니까 ㅋㅋㅋ 이날 식사도 성공!!

출처: <http://momopd.tistory.com/75> [모모PD의 하루하루]

[illegible]

8호선 老西门 (Laoximen 라오시먼)역에서 10호선 환승

10호선 豫園 (Yu garden 예원) 하차

10호선 豫园 (Yu garden 예원) 하차